

군산시, 추석맞이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마을별 전담 수거팀 조직... 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전량 인계해 자원화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에 나서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곳곳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산시 농촌지역 전역에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에 나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640명 회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째 영농폐기

물 공동 수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동안 600톤이 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오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농촌마을과 농경지에 방치돼 토양오염과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에 수거한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후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비닐, 비료포대, 농약

병지 등 4개 품목이다.

평소에도 생활개선회원들은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농약 공병과 비료포대 등 폐자재 분류수거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집중수거기간 마을별 전담 수거팀을 조직해 공동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기간 모아진 폐자재는 농업기술센터에 임시 집하한 후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전량 인계하여 자원화 한다.

특히, 생활개선회원들의 공동수거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장학금 전달, 어

르신 효 잔치 등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자원봉사활동에 뜻깊게 사용하고 있다.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임순옥 회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사업으로 농촌지역이 깨끗해져서 보람을 느낀다"며 "생활개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농지·하천 등 주변 환경을 오염과 미세먼지 염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거가 필요하다"며 "뜻은 날씨에도 동참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추석명절 장보기는 재래시장에서”

군산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지난 6일 시의회는 제22회 임시회 폐회 후 공설시장을 찾아 어깨띠를 두르고 내외장 상품 홍보를 하며 시민들이 추석명절 장보기에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이어 시의원들은 공설시장에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 얼어붙은 경기로 힘겨워하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보태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또한 김경구 의장과 의원들은 시장 상점 곳곳을 돌아보며 대형마트 입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점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시민 경제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밑바탕인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군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우리 시민들도 신선하고 저렴한 먹거리와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는 데 함께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시내버스 파업 철회, 정상운영

임금협상 극적 타결... 비상수송대책 해제

지난 6일부터 예정됐던 익산시 시내버스 파업이 시내버스 3개사 노·사의 밥상 교섭 끝에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전면 철회됐다.

시내버스 노사협상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익산시는 지난 4일

부터 협상에 참여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으며 노·사가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당초 우려됐던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고 파업에 대비해 2일부터 추진한 비상수

송대책도 해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며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익산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보건소,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독감 백신 생애 첫 접종하는 어린이 (만 8세 이하) 독감예방접종을 오는 17일부터 지정 의료기관 33개소에서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적절한 면역 획득을 위해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어린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되고, 기존에 접종이력 있는 어린이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회만 접종하면 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 등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소 예방접종실 (☎460-3244)로 문의하면 되고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지정 의료기관 또는 해당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집 밖으로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편리한 서비스가 이뤄진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전화 한통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의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 2014년을 시

작으로 올해로 5년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제도는 펌프나 코일, 외장재 등의 훼손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제품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서류제출 없이 콜센터(1599-0903) 또는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형 가전제품은 재활용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별도 수수료 없이 무상

으로 수거되며 콜센터에서 접수받지 않는 사업장용 냉장고 등은 서해환경(445-2943)으로 신청하면 수거가 가능하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는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힘들게 냉장고를 집밖으로 옮겨놓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묻는 민원전화와 오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부품을 다 떼어낸 냉장고를 저 멀리 고군산 군도까지 가져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2019 군산시민의 장 3개 분야 선발 확정

군산시는 지역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군산시민의 장에 3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공고, 접수, 공적 현지조사,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산업장에는 (주)대창 대표이사인 유

복근(70)씨가 선정됐다. 유씨는 세아베스틸 협력업체로 지난 2004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협력업체 중에 최고의 임금과 복지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작업환경을 실현해 노사 협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15년째 무분규 사업장으로 세아 계열사의 노사 화합분위기에 일조했다.

효열장에는 양영숙(61)씨가 선정됐

다. 양씨는 3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며 자식된 도리인 효를 몸소 실천했으며 자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해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했고 남다른 야망심으로 이웃들과 화목하게 생활해 타의 모범이 됐다.

교육장에는 조인호(71)씨가 선정됐다. 조씨는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총 36년간 군산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재직 중 많은 인재를 육성해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한가위 주민 큰잔치

익산시 동안·부송사회복지관은 지난 6일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관과 봉사단체의 재능기부와 관내 후원업체들이 연계 협력하여 문화공연과 먹거리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한가위 주민 큰잔치'를 개최했다.

오전 행사는 동안사회복지관에서 동산원광어린이집 아동들의 유아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익산동산1관리소, 예술여행 봉사단체의 공연 한마당, 송편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사람과 사람들 연예봉사단의 공연에 이어 후원물품 나눔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코레일 전북본부 차량차 참가봉사회, 영등동 굿모닝약국, 주택관리공단 익산부송1관리소 등이 협력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원광대, 재학생 및 시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시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대학본부 법무실과 공동으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교내 학생지원관 1층 로비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2학기 개강과 함께 재학생 등 대학 구성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법률상담은 지난 1학기에 발행한 원광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피해 발생 예방 및 기타 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소를 찾은 한 재학생은 "사기당한 액수가 그리 많지 않아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 애매했는데 교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줘 편하게 상담을 받았다"며,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절차나 고소장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사소한 금품증도 물

어볼 수 있어 좋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심용재 교수는 "이번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많은 분이 소송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추후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리걸클리닉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늘려 법률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광대 법무실장 황창용 교수도 "여전히 법률상담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속해서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